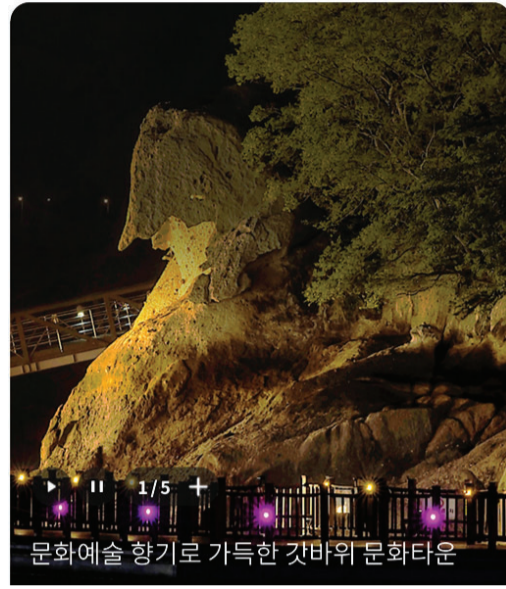


# 낭만항구 목포 모든 관광정보 스마트폰에 담았다

목포방 VISIT MOKPO KO 話 Q ㉿



비짓목포 앱 홈 화면.

## 대화형 AI 서비스 '비짓목포' 출시...스마트 관광안내 시작 앱 기능 업그레이드...서남권 9개 시·군으로 콘텐츠 확대

목포의 모든 관광정보, 스마트폰 하나에 담았다.

목포시는 4월부터 기존 스마트 관광안내 앱의 콘텐츠를 확대하고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스마트 관광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비짓목포' 앱과 주요 관광지를 다국어(한·영·일·중)로 해설하는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을 지난 2021년 구축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관광 정보제공 기능에 국한돼 있고, 콘텐츠가 목포시에 한정돼 있어 서남권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사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기존 앱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관광

객들이 한층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비짓목포(Visit Mokpo)' 앱은 네이버 플레이스,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숙박·음식점 등 관광 편의 시설 예약·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한층 간편한 방법으로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은 서남권 9개 시·군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서남권 주요 관광지의 해설을 앱 하나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리텔링 형식의 오디오 콘텐츠로 전달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 앱 최초로 도입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목포 관광에 관한 주제에

한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대화로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목포 스마트 관광해설사 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워진 스마트 관광안내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목포 관광'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설치 없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김만수 목포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사업팀장은 "이번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용역 수립 완료



국립난대수목원 '레이크 가든 센터' 조감도.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이 예정보다 4개월여 앞당겨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475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수목원을 열면 연간 수십만명의 방문객과 1조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완도군은 내다봤다.

기본 계획 용역은 사업 추진 방향과 방향, 구상,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이다.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 사업을 용역 착수 단계부터 세부 사항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 산림청에 건의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기본 계획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목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내용을 담았다.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 가든 센터'와 모노레일,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트리탑 데크 로드', 전시 온실 등도 구축한다.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은 곧바로 기본설계에 착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원 완도군수는 "기본 계획을 보니 그간 실무진의 많은 고심과 노력이 담겨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완도군이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큰 축을 맡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 큰 노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암왕인문화축제 퍼레이드·불꽃놀이 나흘간 16만명 즐겼다



지난 31일 막을 내린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불꽃 '낙화유수'가 영암 상대포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영암군 제공>

### 다회용기 등 사용 친환경 축제 수제막걸리 완판 굿즈도 인기

영암군이 지난달 28~31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개최한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에 관광객 16만 명이 다녀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시공초월(時空超越)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낮에 밤을 더해 시간을 넓히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상대포까지 공간을 확장하고, 왕인박사 인물에 49개 콘텐츠를 가미한 '시·공·콘(時·空·CON) 초월' 행사로 진행됐다.

야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상대포까지 진행된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 '미래를 향한 발걸음'과 상대포 실경산수공예 '월인천강과 불꽃놀이'는 축제에 빛을 더했다.

상대포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관람하는 '낙화유수'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다양한 세대가 밤까지 영암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MZ 밤마실존' '봄설레임 콘서트' '봄봄봄 콘서트'를 포함해 LED 조명을 이용한 '왕인네온 거리존'도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의 깊이를 더했다는 평가다.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혁신의 면모가 빛났다. 축제추진위는 지난해 야시장이 차지했던 축제장 입구에 주차장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축제를 표방한 행사답게 영암의 도시브랜드와 슬로건이 새겨진 다회용기가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영암 농특산물을 가공한 수제막걸리, 수제맥주는 현장에서 완판됐고, 축제에 발맞춰 출시한 모자티셔츠·머그컵·볼병 등 50종의 관광굿즈도 인

기를 끌었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이 백제 왕인박사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가던 모습을 한 자리에 재현한 '조선통신사 행렬과 왕인박사 행차길놀이'도 시선을 모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축제 기간 고르지 않은 날씨와 늦게 핀 벚꽃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고, 인물에 콘텐츠를 더한 행사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가거도는 경기 평택 섬 비금도는 경북 영동 섬 신안군 '명예 섬' 제도 인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명예섬 지정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1004섬 신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섬 없는 자매 결연 지자체에 명예 섬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이자 국경 끝자락에 있는 가거도가 경기 평택의 섬으로 지정되는 등 현재 13개의 지자체와 명예 섬의 인연을 맺었다.

평택시는 2024년을 '평택의 섬(가거도) 방문의 해'로 선포했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가거도를 방문했다.

비금도를 명예 섬으로 둔 경북 영동군도 지난달 수선화축제 기간에 정영철 영동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동군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도 축제와 행사 시 10여차례 왕래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신안군은 2020년 시작한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섬이 없는 시군구에 큰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거도는 육지 한번 나가기가 외국 가기만큼 멀고 교통이 불편하지만, 일상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인생 섬'으로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군 물김 위판액 1000억원 돌파...“역대 최대 규모”

### 마른김 수출 증가로 가격 급등

해남군의 올해 물김 위판액이 3월 말 기준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물김 위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2024년산 김 양식을 위해 8237ha 면적에 16만 4740여 척을 시설해 지난해 10월 화산 구성 위판장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하고 있다.

해남군의 물김 위판액 상승은 최근 마른김 수출 급증으로 국내 김 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원재료인 물김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남군은 전년 대비 김 양식 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생산 금액은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인 해상으로 평균 수운이 지속해서 유지돼 염채 성장을 촉진했고, 초기 채묘 시기에 갯병 발생이 적어 고품질의 물김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게 해남군의 설명이다.

올해 해남군의 물김 생산량은 현재까지 5만 7360t에 이르며, 4월 말까지 최대 6만5000t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화산 구성항에서 물김을 위판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인증 부표 보급과 김 어망, 김 육상 채묘 지원 등 김 양식 관련 16종 사업에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군은 또 지난해에 김 산업 진흥 구역 지정 공모 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 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추진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김희수(오른쪽 다섯번째)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 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종합평가에선 세수 확충, 세외수입, 세정 운영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32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작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엔 대상을 수상, 상금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 재산 전제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군청 공직자들이 세정업무에 집중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과 세입 확충,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영광군 6대로 설치 확대



영광군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영광군이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적금급을 지급해주는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현재 설치된 3대를 비롯해 이번에 3대를 추가 설치해 총 6대를 운영한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는 ▲만남의광장 ▲영광읍사무소 ▲(우)우시장 공영주차장(축협하나로마트 인근)에 설치돼 있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는 모바일 앱 '캔가루'에 회원가입 후 무인수거자판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거나, 교통카드(캐시비)를 인식하고 재활용품을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인식해 개당 10원씩 적립된다. 적립된 적금급은 2000원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에 투입 가능한 품목은 음료수 캔(통조림 캔이나 마가진 캔 제외)과 투명 페트병이다. 투명 페트병은 상표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투명 페트병으로 500ml부터 2l까지 모두 인식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이용한 재활용품 회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